



뉴욕한인교회협의회 제46회기 제1차 임실행위원회가 27일 2020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제2차 준비 기도회를 겸하여 하크네시아교회에서 열렸다.

뉴욕교협, 2020년 신년감사예배 준비 기도회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양민석 목사) 제46회기 제1차 임실행위원회가 27일 오전 10시30분 2020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제2차 준비 기도회를 겸하여 하크네시아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조원태 목사의 사회와 이진아 사모의 반주로 진행됐다.

기도는 김진화 목사, 성경 봉독은 김영호 장로, 설교는 전광성 목사, 합심 기도는 박마이클 목사, 이종선 목사, 하정민 목사, 임지윤 목사 등이, 헌금 특주는 신우철 목사 부자가, 헌금 기도는 이은수 목사, 축도는 김영식 목사가 담당했다.

전광성 목사는 출애굽기 36장 2-7절을 본문으로 ‘넉넉히 채우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전 목사는 “하나님께서서는 성막을 건설하기 위해 모세를 통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모으셨다. 하나님의 성막을 건설하

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셨다. 재능과 지혜가 있어도, 그 일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열 가지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의 뜻에 동참할 수 없다.

재능, 지혜,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날 때, 우리를 주관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령의 영감을 따르면 우리의 삶은 위선적이거나 주체넘지 않고 겸손하게 된다. 우리의 주도적인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 되며 금욕주의적인 삶의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서도 온전하고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받은 영감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 영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주님의 일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어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마이클 목사가 “2020년 신년 감사예배와 하례만찬을 위하여”, 이종선 목사가 “한국, 미국, 북한을 위하여”, 하정민 목사가 “뉴욕교회를 위하여”, 임지윤 목사가 “차세대와 청소년을 위하여”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2부 회무(경과 보고)는 의장 양민석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평신도 부회장 겸 출판위원장 손성대 장로는 “62개 교회와 사업체로부터 5만3,600달러의 광고를 수주했다”고 보고했다.

2020 신년하례만찬준비위원회 위원장 조원태 목사는 “진정성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이번 신년 하례만찬의 방향성은 회기의 표어인 ‘함께 감시다’이다. 목회적 환경이 열악한 목회자 부부, 차세대 교회 목회자와 다음 세대,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는 기관 사역자 등 100명을 무료로 초청하려고 한다. 재정 상황이 되는 교회들의 협조를 부탁한다. 1인당 회비가 60불이므로 6천 달러의 후원이 필요하다. ‘함께 하자’는 이번 회기는 임마누엘 정신과 같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이들과 장벽을 허물고 함께 더불어 시작하는 신년 하례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회계 이광모 장로가 제46회기의 예산안을 보고했다.

수입과 지출 예산은 지난 회기 수입 결산액 33만8,141 달러보다 늘어난 37만6,604 달러이다.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